

하느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문을 닫아걸고 자리에 누운 그 사람과 같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기도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은 채 소원을 아뢰는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 친구를 위해서 염치없는 수모를 각오하면서도 그에게 먹을 것을 얻어다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마태 7, 21 이하)고 했습니다.

5. 심 판

1) 공존의 때와 심판의 때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싹이 나고 알이 잘 때에 가라지도 보이니 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밭에 뿌린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말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말하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하고 주인이 대답했다”(마태 13, 24~30).

고용된 어떤 농부가 정성껏 밭을 갈고 모든 잡것은 다 제거하고
 흙을 고르고 부드럽게 하고 골을 단정하게 만든 다음 그 위에 정성
 껏 골라낸 밀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 주인에게 어떤 이유로
 양심을 품은 원수가 그 위에 가라지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이 농부
 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밀이 싹이 나고 알이 차기 시작할 무렵에 보
 았더니 뜻밖에도 밀과 비슷한 가라지들이 많이 섞여 자라고 있었습
 니다. 그는 그가 밭을 정성껏 가꾸고 또 주인에게서 받은 밀알을 정
 성껏 골라 심은 것을 눈여겨본 밭 주인에게 좋은 씨만 골라 심었는
 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마도 이 소작인은 주
 인에게 책망이라도 듣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
 다. 어쩌면 주인이 그에게 가라지가 나게 한 책임을 지울지도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소작인이 씨를 정성껏 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도 그를 탓하지 않고 아마 원수가 한 짓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눈치만 살피야 하고 때로는 지주들이 온갖 잘못
 을 뒤집어씌워서 다른 일로 불편한 자신의 심기를 종이나 소작인을
 대상으로 마구 분풀이하기 일쑤인데, 이 주인은 그런 자들과는 거리
 가 먼 선량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 종에게 안도감과 해방
 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차 있었
 을 것이며, 더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했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농부는 자진해서 주인에게 지금 당장 가
 라지를 다 골라 뽑아내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마태 13, 29~30).

참으로 인자한 주인다운 반응입니다. 또 주인의 말이 옳기도 하구요. 가라지를 뽑다가 함께 자라는 곡식마저 뽑아버리듯이 사람이 감정에 자기를 내맡기면 남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상하거나, 원수에게 해를 입히려다가 자신도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공존하게 그대로 두라니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곡식과 가라지를 언제나 그대로 내버려두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 따로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밀대로 골라 곳간에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예수는 농부들의 노동현장인 밭에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알알이 영그는 소담한 밀밭을 순결과 풍요의 상징으로 대견하게 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에 임박한 무렵에 그 밀밭을 다시 보았을 때 뜻밖에도 많은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농부의 고민을 읽고 동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밭을 가꾼 농부도 사이 사이에 돋아난 가라지를 보고 분노를 느꼈을 것이나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곡식을 아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곡식과 가라지는 엄격히 구별되는 날이 올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예수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을까요? 물론 농사짓는 이야기를 가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결단을 해야 할 마당에 한 밀밭을 응시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열쇠는 바로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과 선량한 것, 불의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점점 오염시키고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을 몰아냅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의분(義憤)의 칼을 뽑아 악하고 불의한 세력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됩니다. 그 충동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폭력에 호소하는 ‘혁명’입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위해서 적은 것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이론을 펴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는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염소와 양을 가려내듯이 쉽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는 민중들에게서 이 더러워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의한 놈들을 하루빨리 칼로 자르듯 처단해버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일행이 갈릴래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려는 것을 그 주민들이 방해할 때,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그들을 태워버리겠다”(루가 9, 54)고 흥분하는 경우처럼,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가슴에 담은 채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밭을 보면서 거기에 함께 난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충동을 일으킨 농부를 연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니’였습니다. 사실 분노를 못 참아 함부로 칼을 뽑는 것은 죄없는 사람들의 희생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성급하고 무모한 처사입니다.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는 목동의 이야기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다수를 위해 소수쯤은 희생돼도 좋다는 생각

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바로 ‘약과 선이 공존하는 사회모순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가만두어보자’는 심정과도 비길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혁명이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심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흑과 백을 가르듯이 의롭고 선량한 것을 다치지 않고 불의만 처단되는 그런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지만 묶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따로 거두어 곳간에 거두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머리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심판’이 주제입니다.

마태오는 이야기의 내용상 ‘심판’이 그 주제인데, ‘하느님 나라의 비유’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 그 어느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순서로 보면 하느님 나라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판이 있는 다음에 비로소 전개되는 현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세부터 특히 갑오농민혁명 이후로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 말 안에는 낡은 시대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종말의 뜻과 더불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종말을 추수로 비유한 것에서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이 아니라 선과 의로움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